

신동빈 회장, 카이스트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 받아

〈롯데그룹〉

책임경영, 산업전환, 가치창출 공로
롯데그룹, 140억 발전기금 출연해
연구개발·디자인센터 준공 앞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신 회장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교수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카이스트는 신 회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핵심 축으로 삼아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구체화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신 회장은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 기반 시설 조성 및 융합 연구 체계 구축에



대전 카이스트(KAIST)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이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롯데

크게 기여해 왔다. 실제 롯데그룹은 2022년 14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을 출연해 롯데-카이스트 연구개발센터와 롯데-카이스트 디자인센터를 짓고 있으며, 각각 오는 5월과 9월 준공을 앞두

고 있다. 연구개발센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바이오 지속 가능성, 탄소 중립 소재 및 에너지 등을 주제로 전공을 초월한 융합 연구 집적

지로 운영된다. 디자인센터에서는 사회 공헌,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사용자 기반 등 포괄적인 기획 연구를 수행한다. 두 기관은 연구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실행형 산학협력 체계로 작동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과 경영의 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혁신 동반자로서 우리의 동행이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광형카이스트 총장은 “과학기술과 산업, 사회적 가치를 연결해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 인물”이라며 “연구 기반 시설 확충과 융합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HD현대일렉트릭, 안전보건 상생 우수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양재철 HD현대일렉트릭 전력사업본부장(오른쪽)과 HD현대일렉트릭 협력사 세마하이텍 박종달 대표(왼쪽)가 시상식에서 수상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LS머트리얼즈, ESG 평가 ‘실버’ 등급

LS머트리얼즈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실버’ 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실버 등급은 전체 평가 대상 기업 가운데 상위 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등급 획득으로 LS머트리얼즈의 글로벌 우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LS머트리얼즈

한화오션, ‘명장’ 제도 도입... 2인 선정

‘제1기 명장 임명식’ 진행
조수연·박순복 기원 명장 선발
퍼플로열 안전모, 사무실 등 지원



지난 25일 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에서 한화오션 제1기 명장 임명식이 열려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이사(가운데)와 명장으로 선정된 박순복 기원(왼쪽), 조수연 기원(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오션

한화오션이 생산직 최고 기술자에게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의 예우를 제공하는 ‘명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제1기 명장 2인을 선정했다. 회사는 이번 명장 선정을 계기로 숙련 기술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보상·명예·성장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제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25일 저녁 거제 벨버디어에서 ‘한화오션 제1기 명장 임명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임명된 명장은 조수연 기원(상선사업부)과 박순복 기원(특수선사업부)이다. 임명식에는 가족들도 함께 초청됐다.

탐재2팀 조수연 기원은 1996년 입사해 무래일 수직·수평 EGW(전기가스용접) 용접 장치를 개발하는 등 8건의 공정 개선을 이뤄냈으며, 관련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다. 조 기원이 개발한 무래일 용접 장치는 지난 2024년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포함됐다.

1989년 입사한 특수선선체팀 박순복 기원은 생산성을 50% 향상시킨 자동 곡직기 개발과 특수선 용접 자동화 기술 적용 등 6건의 공정을 개선했다. 또한 13건의 작업 여건을 개선해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업무 강도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 이번에 선발된 제1기 명장들은 선박 건조 핵심 공정 전반에서 현장 난제를 해결하고 표준 작업을 정립해 온 베테랑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다면 평가와 대한민국 명장 초청 심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역량을 검증받았다.

명장에게는 단계적인 보상과 지원이 제공된다. 최초 선발 시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실적 평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회사는 명예를 상징하는 ‘퍼플로열(Purple Royal)’ 색 안전모와 개인 사무실, 개인 업무용 차량 등을 지원한다.

임기 종료 후에는 실적과 공헌을 기록한 동판이 사내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며, 정년 이후에는 기술지도강사로 근무할 기회도 부여된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포스코1%나눔재단, 포스아트 전시물 기증

시각장애인 전시작품 관람 도와

포스코1%나눔재단은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관람을 돕기 위해 포스아트(PosArt) 기반의 ‘촉각 전시물’을 제작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포스아트는 특수 철강재 위에 고해상도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포스코그룹의 프리미엄 컬러강판이다. 잉크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3D 적층 기술을 적용해 기존 컬러강판 대비 4배 이상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

포스코그룹 임직원 급여 1% 기부로 운영되는 포스코1%나눔재단은 그룹의 프리미엄 컬러강판인 포스아트 기술을 접목해, 사회적 약자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줄이는 배리어프리 전시에 힘을 보탤다.

재단은 포스아트 기술을 예술작품에 적용하면 섬세한 입체 질감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작품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시설물 제작은 포스코그룹의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가 전담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포스아트를 활용해 제작·기증한 시설물은 ▲서화실 입구 대형 연출벽 ▲대표 서화를 손끝으로 감상하는 촉각테이블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4개의 쇼케이스 등 총 3개 종류다

‘옛 비석의 벽’으로 조성된 대형 연출벽은 옛 비석의 글씨를 포스아트로 재현해 우리 서예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테이블에는 점자를 포함한 작품 설명을 눈높이에 맞춰 배치했으며, 3D 적층 공법을 적용한 유물 촉각 패널을 통해 거장들의 필치와 붓의 미세한 흐름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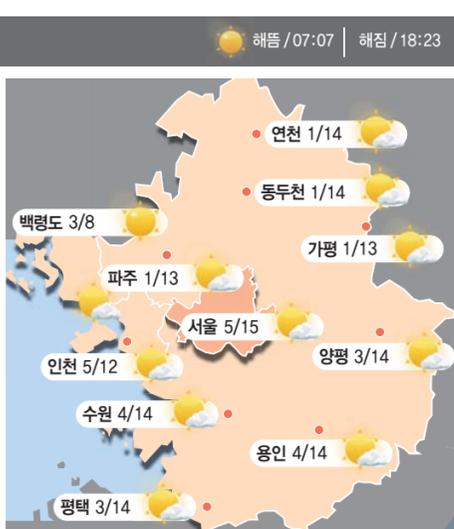
/유혜은 기자

오늘의 날씨

2월 27일(금)
음력: 1월 11일

수도권 날씨
5 ~ 15°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중진공-상명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나서

K-Work플랫폼 활용해
AI·반도체 취업연계 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명대학교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중진공은 26일 충남 천안에 있는 상명대 천안캠퍼스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상명대와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기관인 중진공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대학 우수 인재·지역 유망 중소기업 간 일자리 매칭 ▲전문 인력 교류를 통한 산·학·관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진공은 일자리매칭플랫폼인 기업인력애로센터와 K-Work플랫폼을 활용해 AI·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들이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HLB제약, ‘韓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HLB제약은 지난 25일 열린 ‘2026 제24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상에서 박재형 대표이사(가운데)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3년 연속 선정됐으며 김만규 부사장(오른쪽)이 ‘파이오니아 상’, 이용우 인사총무총괄 이사(왼쪽)가 ‘혁신리더상’을 각각 수상했다.

/HLB제약



NH농협은행, 1일사 금융교육 금감원장상

NH농협은행은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된 ‘2025년 1사1교 금융교육’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오른쪽)이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인사

- ◆교육부 ◇부이사관 발령 ▲국제교육정책 담당과 안우환 ▲교육부(위성탄한국교육원 파견) 유희승 ▲강원대학교 행정본부장 신미경 ◇서기관 발령 ▲영유아교원지원과장 연수진 ▲학생정서지원과장 신정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구본익

부음

- ▲강정애씨 별세, 한승양(한마당 대표이사)·형준(서울보통계리법인 상무)·수일(NH아문디자인산업용 상무)씨 모친상,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28일 오전 5시15분, 장지 전북 군산 선영. 02-3410-3151